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분석 :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오은경*·류진아**

초 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관한 질적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RISS4U, KISS, DBpia)에서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34편을 분석하였다. 총 34편에 대해 논문 발행연도, 학문분야 및 학술지명,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들을 분석하여 질적연구 동향을 파악하였고, Hoyt&Bhati(2007)가 주장한 네 가지 차원에 따라 질적연구 수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이었으며 2011년 이후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구가 게재되었다. 셋째, 사회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가족·관계, 정신건강과 심리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질적연구 수행과정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의 초점과 연구결과 제시 및 보고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수자를 통한 확인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제외되어 전반적인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 관련한 질적연구 주제의 확대와 각 학문 분야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여성, 다문화여성, 질적연구, 동향, 다문화, 탈북

* 제1저자: 건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전문조교수(eunkyoung@konyang.ac.kr)

**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교수(jina1031@ut.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직계가족, 배우자 등의 친인척, 주소나 직장 등을 두었던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다른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8년 947명을 시작으로 현재 총 33,75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으며, 남성 9,435명, 여성 24,317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2.1%가 여성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국경 이동이 수월하고, 중국에서 신분의 불안정, 기 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남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 등을 요인으로 보고 있다(강차연, 2003; 이영선 외, 2011; 류진아·오은경, 2021).

200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유입이 급증하고 개인에서 가족 단위의 입국 형태가 변화하는 특성들을 보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안태윤, 2014, 박소연, 2017, 류진아, 오은경, 2021).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나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심각한 인권유린경험, 탈북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심리적 외상문제, 남한 입국 후 파생되는 다양한 적응문제 등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그간 북한이탈여성의 연구는 수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이었으며(이영선 외, 2010),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맥락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박소연, 2017).

경험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므로 연속적이다(Dewey, 1938). 경험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개념과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이 접하는 환경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의 재구성으로(류진아, 오은경, 2021) 그들의 삶을 담고 있기에 경험 전체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변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기제들을 찾고 현상을 규명하며 흔히 관찰할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해 온 연구방법으로 (손은정, 2010), 다문화 대상자들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질적연구방법에서 혼합연구방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법론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특히, 질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 행동들에 집중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삶의 전체 맥락(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기에 다문화 대상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양적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드문 현상에 대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과정과 본질을 생생하게 밝히며 다양한 상황과 노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내준다(박승민 외, 2012, 최혜윤, 2019). 이러한 중요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논문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논문의 수는 크게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북한이탈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북한이탈여성만의 특수성이 존재함을 볼 때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도움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정영선 2018).

질적연구는 연구자 편견과 배제에 관하여 연구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Hoyt & Bhati, 2007, Morrow, 2005). Hoyt와 Bhati(2007)는 질적 연구 내적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질적 연구의 수행과 원칙을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변화 속에 질적 연구가 보다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연구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질적연구의 질(quality)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Hoyt와 Bhati(2007)의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에 근거하여 질적 연구물을 분석하거나 수행과정 평가에 대한 검토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봉환 외, 2012, 김은경, 김현주,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논문 중 질적 연구방법으로 작성된 연구물을 찾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질적 연구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행과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국내 학술지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자기성찰 활동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김계원 외, 2011), 질적 연구의 수행과정 평가와 타당성 검토는 질적연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학문의 본질적 발전에 기여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있어 ‘여성’ 대상 논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해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질적연구의 발행연도별 논문 수, 학문분야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질적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 북한이탈여성 관련 선행 연구

1)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

북한 정치사회 체제의 중요한 운영기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유교식 통치이념이 혼합된 특징이 있다(조아람 외, 2013). 북한 여성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국가가 담당하던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였으며(박신순, 2014, 박현선, 2003),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북한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부양의 역할을 전담했다. 북한 사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박명희, 2005), 취약계층인 북한 여성들은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였다(노정화, 김현주, 2018).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탈북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결혼, 강제노동,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극한 생존상황에서 인권상실, 성적 문제를 경험, 심리적 외상을 내면 깊숙이 지닌다(최현실, 2011). 이로 인해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비롯한 우울 및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조아람 외, 2013), 북한과 중국 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정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김영란, 2000).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한국사회 정착의 장애요소로 작용되어(한인영 외, 2013),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남성들에 비해 적응상의 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박소연, 2017). 또한, 북한이탈여성들 중에는 한부모 가정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동반 입국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의 남한 적응문제와 생계유지, 가사, 자녀 양육 및 돌봄까지 감당해야하는 현실적 문제 어려움과 (홍승아, 2013) 자녀의 학습과 또래관계, 자녀의 적응 문제 등 엄마로서의 바람직한 양육과 역할까지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및 제 3국에 체류하고 남한으로 입국하는 일반적 과정이지만 남한 입국 전까지는 여성이라는 낮은 지위와 취약성으로 생존을 위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외상을 경험하고 남한 입국 후에는 또 다른 삶의 과업과 문제들로 인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북한이탈여성 관련 선행 연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가족 및 자녀문제, 생계유지 및 경제적 문제 등 남성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북한이탈여성 관련된 선행연구도 세분화되어 정책, 의료보건, 여성, 사회복지, 심리 등 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 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주제들은 크게 인권, 외상, 남한 사회 적응 및 정착 관련 연구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최현실, 2011).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이탈주민 증가의 배경요인들을 분석하며, 남한으로 오기까지 중국이나 제3국의 탈북 경로에서 겪게 되는 인권문제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금순 외, 2005). 북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로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이들을 불법월경자로 체포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다(최현실, 2011).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조국을 배신하였다는 죄명으로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 폭력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경, 2019). 이들이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인권유린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 정치학적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홍규덕, 2002)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외상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북한에 거주할 때 이미 심각한 외상 경험을 하고(이금순 외, 2005), 남한 입국 전 중국에서 수많은 인권유린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김태현, 노치영, 2003) 체류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차연, 2006, 김미자, 2008). 이러한 외상 경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어져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PTSD 유병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며(성정현,

2014), 심리적으로 불안, 열등감, 죄책감, 좌절 등 부정적인 경험들을 오랫동안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순 외, 2005, 이영선 외, 2011, 장혜경, 김영란, 2000). 특히, 북송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가 높았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최빛내, 김희경, 2011). 다른 한편으로는 외상은 장애이기 보다는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지만 진행되었다(김희경, 2012; 이숙영 외, 2016; 최승미, 2008). 복합적이고 극단적인 삶의 경험들이 꼭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긍정적 변화도 고려해야하며(이숙영 등, 2016), 지금 성장의 진통을 경험하는 것이며(이양자, 정남운, 2008)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김현경, 2007)이자 긍정적 측면을 지향하고 새로운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최승미, 2008).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연구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불안정한 신변의 위협을 해소하고 자유를 찾고자 남한에 오지만,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진아, 오은경, 2021, 조용관, 김윤영, 2009). 주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자녀교육(장혜경, 김영란, 2001, 김영수, 2000), 남한사회 적응(이기영, 성향숙, 2001, 조영아, 전우택, 2005) 등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연구로는 문숙재 외(2000)의 중국 내 탈북여성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를 분석한 논문으로 북한의 탈북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탈북동기를 살펴보았다. 그 후 남한의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자수 증가로 남한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인숙, 2006; 박은숙, 2014; 유시은 외, 2005; 장혜경, 김영란, 2000; 김혜영, 2020). 상이한 문화권에서 생활한 이들이 낯선 남한에 적응을 돕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기에 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들이 증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적응에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 만족도와 언어적응과 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경옥, 2002; 김용태, 배철효, 2010; 전주람, 김성미, 2015). 이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여상 외 2007, 윤인진, 2009, 이금순 외, 2003), 사회문화 적응에 있어서도 언어의 이질화, 가치관의 차이, 차별과 편견, 남한사회 내에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열악한 자본 등으로 부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한인영, 홍선희, 2012, 신희정, 2017).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 분석 대상 논문 설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 중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 문헌을 선정하였다(표 1).

〈표 1〉 북한이탈여성 질적연구 논문 선정과정

검색어		자료수집결과
기간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전체	
1차	북한이탈주민 + 질적연구	86편
	탈북여성(북한이탈여성) + 질적연구	25편
	새터민 + 질적연구	25편
2차	연구주제 불일치 문헌	61편
	혼합대상(북한이탈주민 남성, 청소년 등)	41편
최종	계	34편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논문검색서비스(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여성’, ‘북한여성’, ‘탈북여성’, ‘새터민’, ‘북한이탈’, ‘탈북’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으며 검색기간은 전체연도로 설정하였다. 검색된 학술지 논문목록 중 ‘질적’, ‘질적연구’를 결과 내 검색어로 추가하여 136편의 논문 목록을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된 학술지 136편의 제목과 초록,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모두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는 질적연구 논문만을 선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연구로 검색이 되어졌으나 북한이탈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참여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자녀가 포함된 연구, 남북한 주민이 함께 연구대상에 참여한 논문 등은 모두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주요 검색어로 선정되었지만 연구의 주제와 맞지 않은 논문(예: 정책 및 군사, 법률 등 연구보고서, 남북한 언어, 교육, 노동, 체제 제도 비교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종교적 이론에 빚대어 표현한 논문, 중복연구 등)과 질적연구로 검색되어지나(예: 사례연구로 명시되어있지만 실태조사 및 서술형태의

논문, 질적·양적 혼합연구 등) 명확한 연구방법 구분이 어려운 논문들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 34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표 2>.

〈표 2〉 국내 북한이탈여성 질적연구 논문 목록

번호	발행 연도	1저자	제목(일부생략)
1	2005	조영아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2	2007	안은미	북한이탈주민 증상표현과 질병형태
3	2010	이덕정	북한이탈 중년여성의 남한정착과정과 평생학습 경험
4	2010	강용원	한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삶
5	2011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정착지원 현상학연구
6	2012	박성정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개선과제
7	2013	조아람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증발생시기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8	2013	신난희	탈북여성 구술생애 깊이읽기: 두 탈북여성 중심
9	2014	한순옥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의 결혼의미와 경험
10	2014	정현숙	북한이탈여성의 어머니 됨 경험
11	2014	김유정	북한이탈여성의 부모화 경험
12	2015	김성남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
13	2015	김기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14	2015	이기영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 동반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경험
15	2015	신민주	미술치료과정에 나타난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경험연구
16	2015	전주람	북한이탈 중년여성들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17	2015	장정은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8	2016	이숙영	북한이탈여성의 외상후성장애 관한 질적연구
19	2016	전주람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사회적자원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20	2017	박소연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21	2017	이은주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업교육 경험과 취업전략 관한연구
22	2017	임세영	탈북여성의 중년기 성장이야기
23	2017	김유정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에 관한연구
24	2018	심우찬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에 관한 탐색적연구
25	2018	노정화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 변화과정
26	2018	정영선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27	2018	강동완	중국 거주 탈북여성의 탈북동기 사례 분석
28	2019	최수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29	2019	김희영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영성형성과정 연구
30	2019	김이경	북송경험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 및 적응에 관한연구
31	2019	유정아	북한이탈여성의 북한 군 생활 경험
32	2020	이수정	북한출신여성의 '다문화'인식 및 경험과 그 함의
33	2020	엄미란	탈북중년여성의 고등교육 학습이 자녀의 성장과정 연구
34	2020	조현미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

2. 평정 절차

1) 평정자

본 연구의 평정은 다문화 교육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육학 상담전공 교수 1명, 북한학 강의 및 북한이탈주민 현장경험과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명, 다문화 동향연구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 1명이 감수하였다.

2) 평정 항목

본 연구는 국내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물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주제와 방법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 게재된 논문에 대한 평정 및 평가 시 고려해야 할 3단계 과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향분석의 절차는 제기된 연구 질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Weber, 1990).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초단계, 연구물의 분석 및 분류단계, 질적 연구물의 평정 및 점검의 3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는 기초단계로 연구물들의 분석 항목과 세부사항을 정하는 단계이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향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물들의 분석 항목을 정하는 것이다. 분석 항목은 질적연구 동향분석(김은경, 김현주, 2017, 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외, 2012, 손은정, 2010)을 참조하여 논문에 대한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한 평정 기준을 정하였다. 연구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다문화 대상 연구인 이주배경 청소년의 질적 연구 분석연구(김은경, 김현주, 2017), 다문화 상담 일반(Lee, Rosen & Burns, 2013), 북한이탈청소년(윤혜순, 2014), 탈북여성에 대한 동향연구(이순민, 심우찬, 2018)들을 참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통해 6개 영역인 정신건강, 사회적응, 취업 및 진로, 가족 및 대인관계, 건강,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3).

〈표 3〉 분석항목 및 세부사항

분석항목	세부사항
기초사항	발행연도, 학술지 게재분야, 학술지 명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 수, 대상자 나이
연구방법	8개영역(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 합의적 질적 방법, 기타)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3개영역(연구의 초점, 연구자의 역할, 결과 제시)
연구주제	6개영역(정신건강, 사회적응, 취업 및 진로, 가족 및 대인관계, 건강, 기타)

2단계는 연구물을 분석 및 분류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논문의 초록, 연구방법, 연구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연구주제와 질적연구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검토하여 분석 및 분류하였다. 수집된 연구물들을 살펴보고 수정 및 논의가 필요한 연구물의 경우 연구자들의 합의를 거쳐 분류하였으며 위 과정은 순환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3단계는 질적 연구물을 평정 및 점검하는 단계이다. 질적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것으로 Hoyt&Bhati(2007)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Hoyt&Bhati(2007)는 질적연구 수행의 원칙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a)연구의 초점 (b)연구 환경 (c)연구자의 역할 (d)연구결과 제시이다 〈표 4〉. 연구의 초점은 연구자가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을 하였는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상자와의 접촉 방법(전화, 대면, 비대면), 접촉비율, 연구 수행 시 활용된 자료(서면자료, 오디오 및 영상자료, 직접관찰), 접촉 시간 등이 분류에 포함된다.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역할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 편안한 환경인지 여부와 질적 연구도구로서 연구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진행에 대한 반성 및 점검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연구결과 제시는 연구논문에서 대상자의 보고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최소한 5줄 이상의 인용문 사용과 대상자 식별이 되도록 표기하는 등 위의 네 가지 차원을 통해 질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원칙과 관행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단계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물들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질적연구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4〉 질적연구 수행과정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항목(Hoyt & Bhati, 2007)

영역	평가 항목		
초점 1.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초점 2.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접촉을 했는가?	①절반미만	②절반이상
초점 3.	연구자 모두가 접근했던 자료는 무엇인가?	①기록자료	②촉어록
역할 1.	주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감수자가 확인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역할 2.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가 바람직함을 명시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인용하였는가?(5줄 이상)	① 예	② 아니요
결과 2.	어떤 연구 대상자의 보고인지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요

Ⅲ. 연구 결과

1. 기초사항 동향분석

1) 발행연도별 논문 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는 2005년도 처음으로 게재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발행 연도별 논문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논문 수	1 (2.9)	-	1 (2.9)	-	-	2 (5.9)	1 (2.9)	1 (2.9)	34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5.9)	3 (8.8)	6 (17.6)	2 (5.9)	4 (11.8)	4 (11.8)	4 (11.8)	3 (8.8)	

2) 학문분야별 논문 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학문분야별 질적 연구방법론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 분야가 9편(26.5%)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했으며, 기타분야가 4편(14.6%), 교육, 의·약학 분야가 4편(11.8%), 상담 및 치료 분야가 3편(9.6%) 순으로 게재되었다<표 6>. 그 밖에 종교 및 정치의

교 분야에서도 소수의 질적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문 분야별 질적 연구방법 논문 게재 수

게재분야	학술지 명	계
교육	성인계속교육연구, 직업교육학회, 평생교육·HRD연구	4(11.8)
사회복지	가족과 가족치료,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사회 복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사회복지질적연구, 아동복지학	9(26.5)
상담및치료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여성, 미술치료연구	3(8.8)
의약학	가정의학회지, 군진간호연구, 대한간호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	4(11.8)
여성학	여성연구, 여성학연구(2)	3(8.8)
기독교신학	기독교교육논총, 선교와 신학	2(5.9)
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 다문화사회연구	2(5.9)
정치외교	북한연구학회, 통일문제연구	2(5.9)
기타	한국과학여성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질적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5(14.6)
계		34(100.0)

2. 질적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1) 연구 대상자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 비율이 126명(38.5%)으로 가장 높은 연령대를 차지하였으며 30대 104명(31.8%), 50대 43명(13.2%) 순으로 나타났다<표 7>. 30~40대의 연구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북한이탈여성연구의 주된 대상자로 분석되었다. 총 34편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나이, 연령대는 모두 제시가 되었으나, 탈북유형, 남한 거주기간, 제3국 거주기간, 입국 경로 등의 정보들은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부분으로 각 논문 마다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제시에 차이가 있었다.

〈표 7〉 연구 대상자 정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대상자 수	39 (11.9)	104 (31.8)	126 (38.5)	43 (13.2)	15 (4.6)	328 (100)

2)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별 논문 수

총 34편의 연구물에서 많이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이 14편(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분석 등 기타방법이 8편(23.5%), 사례연구, 생애사가 3편(8.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8).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 논문 수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5년도 1편(2.9%), 2006~2010년도 3편(8.8%)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11~2015년에는 14편(41.3%), 2016-2020년도 16편(47.0%)으로 질적 연구방법 논문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행연도별 연구방법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도 이후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현상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 논문 수

	2005년이전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계(명/%)
현상학			8(23.5)	6(17.6)	14(41.1)
근거이론				1(2.9)	1(2.9)
사례연구		1(2.9)	1(2.9)	1(2.9)	3(8.8)
문화기술지			1(2.9)		1(2.9)
내러티브		1(2.9)		1(2.9)	2(5.9)
합의적질적			1(2.9)	1(2.9)	2(5.9)
생애사			1(2.9)	2(5.9)	3(8.8)
기타	1(2.9)	1(2.9)	2(5.9)	4(11.8)	8(23.5)
계	1(2.9)	3(8.8)	14(41.1)	16(47.1)	34(100)

3)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동향 분석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동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분석결과, 사회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전체 34편 중 10편(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9편(26.5%),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연구가 5편(14.7%) 순으로 분석되었다.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남한사회적응 연구는 2005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논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1-2015년 이후 부터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 재북 시 군생활 경험, 여성형성과정 등 기타 영역의 연구주제들도 새롭게 수행되었다.

〈표 9〉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동향

	2005년 이전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계(명/%)
정신건강 ·심리			3(8.8)	2(5.9)	5(14.7)
사회적응	1(2.9)	2(5.9)	3(8.8)	4(11.8)	10(29.4)
취업·진로			1(2.9)	3(8.8)	4(11.8)
가족·관계			6(17.6)	3(8.8)	9(26.5)
건강		1(2.9)	1(2.9)		2(5.9)
기타				4(11.8)	4(11.8)
계	1(2.9)	3(8.8)	14(41.2)	16(47.1)	34(100)

3. 질적연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발행연도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10). 연구초점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했는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총 34편 중 32편(94.1%)의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전체 연구진행 과정 중 절반 이상의 비율로(31편, 91.2%) 연구 대상자들과 직접 대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이 사용한 질적 연구자료 중 축어록 사용이 30편(8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된 2011년 이후에는 축어록 외에 기록자료(비디오, 영상, 문헌자료)들을 통한 연구 자료도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편견을 최소화하고 감수자를 통해 연구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자의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에 대한 바람직함에 대해 16편(47.1%)은 연구물에 명시하였으나,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감수자가 확인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감수를 하지 않은 연구물’이 18편(52.9%)으로 감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연구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 제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는 내용의 보고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말들을 충분히 5줄 이상 인용하였으며, 어떤 연구 대상자의 보고인지도 함께 제시되어 기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1편, 91.2%).

〈표 10〉 발행연도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Hoyt & Bhati, 2007)

	2005년 이전	2006-2010	2011-2015	2016-2020	전체
초점1.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했는가?					
① 예	1(2.9)	3(8.8)	13(38.2)	15(44.1)	32(94.1)
② 아니요			1(2.9)	1(2.9)	2(5.9)
초점2.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접촉을 했는가?					
① 절반미만			1(2.9)	2(5.9)	3(8.8)
② 절반이상	1(2.9)	3(8.8)	13(38.2)	14(41.2)	31(91.2)
초점 3. 연구자 모두가 접근했던 자료는 무엇인가?					
① 기록자료			2(5.9)	2(5.9)	4(11.8)
② 축어록	1(2.9)	3(8.8)	12(35.3)	14(41.2)	30(88.2)
역할1. 주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감수자가 확인했는가?					
① 예			10(29.4)	6(17.6)	16(47.1)
② 아니요	1(2.9)	3(8.8)	4(11.8)	10(29.4)	18(52.9)
역할 2.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가 바람직함을 명시했는가?					
① 예			11(32.4)	9(26.5)	20(58.8)
② 아니요	1(2.9)	3(8.8)	3(8.8)	7(20.6)	14(41.2)
결과1. 연구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인용하였는가?(5줄 이상)					
① 예	1(2.9)	2(5.9)	13(38.2)	15(44.1)	31(91.2)
② 아니요		1(2.9)	1(2.9)	1(2.9)	3(8.8)
결과 2. 어떤 연구 대상자의 보고인지 제시하였는가?					
① 예	1(2.9)		14(41.2)	16(47.1)	31(91.2)
② 아니요		3(8.8)			3(8.8)

2) 연구방법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질적 연구방법별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현상학을 활용한 연구물 분석결과, 전체 14편 중 연구자의 초점(14편, 41.2%)과 감수(10편, 29.4%), 연구자의 선입견 배제와 결과 제시에 대한 언급(14편, 41.2%)이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접근을 활용한 연구물 분석에서는 감수 및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등 바람직함에 대한 명시가 전체 8편 중 ‘예(1편, 2.9%), 아니요(7편, 20.6%)’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연구방법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Hoyt & Bhati, 2007)

질적연구 방법										전체
	현상학	근거 이론	사례 연구	문화 기술지	내러티브	CQR ¹⁾	생애사	기타		
초점1	① 예	14(41.2)	1(2.9)	3(8.8)	1(2.9)	2(5.9)	2(5.9)	7(20.6)	32(94.1)	
	② 아니요						1(2.9)	1(2.9)	2(5.9)	
초점2	①절반미만					1(2.9)	1(2.9)	1(2.9)	3(8.8)	
	②절반이상	14(41.2)	1(2.9)	3(8.8)	1(2.9)	2(5.9)	1(2.9)	2(5.9)	7(20.6)	31(91.2)
초점3	①기록자료			1(2.9)			1(2.9)	2(5.9)	4(11.8)	
	②촉어록	14(41.2)	1(2.9)	3(8.8)		2(5.9)	2(5.9)	2(5.9)	6(17.6)	30(88.2)
역할1	① 예	10(29.4)	1(2.9)	2(5.9)	1(2.9)	1(2.9)		1(2.9)	16(47.1)	
	② 아니요	4(11.8)		1(2.9)	2(5.9)	1(2.9)	3(8.8)	7(20.6)	18(52.9)	
역할2	① 예	14(41.2)	1(2.9)	2(5.9)		1(2.9)	1(2.9)	1(2.9)	20(58.8)	
	② 아니요			1(2.9)	1(2.9)	2(5.9)	1(2.9)	2(5.9)	7(20.6)	14(41.2)
결과1	① 예	14(41.2)	1(2.9)	2(5.9)	1(2.9)	2(5.9)	2(5.9)	3(8.8)	6(17.6)	31(91.2)
	② 아니요			1(2.9)				2(5.9)	3(8.8)	
결과2	① 예	14(41.2)	1(2.9)	2(5.9)	1(2.9)	1(2.9)	2(5.9)	3(8.8)	7(20.6)	31(91.2)
	② 아니요			1(2.9)	1(2.9)			1(2.9)	3(8.8)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연구 중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물을 찾아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게재된 총34편의 질적 연구물에 대해 기초사항, 연구물 분석 및 분류, Hoyt& Bhati(2007)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질적 연구물의 평정 및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야별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남한 사회에서의 생존과 경제적 성취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양옥경, 윤지혜, 2017). 상이한 제도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사회복지

1)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적 접근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우선과제임을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탈북과정’은 인신매매에 대한 노출, 인권유린, 죽음목격, 가족해체 등 외상(trauma)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며 외상경험은 남한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숙영 외, 2016). 이러한 중요성에도 국내 다문화 상담분야의 주된 연구 대상자는 결혼이주자 여성이 62.6%, 북한이탈주민은 6.1%로 여전히 매우 낮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본 연구결과에서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및 정신건강의 상담 및 치료분야 논문 게재는 전체 34편중 3편(8.8%)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의 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발행연도에 따른 질적 연구방법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2005년에는 1편(2.9%), 2006년-2010년 3편(8.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이후 논문의 발행 수는 두 자리 수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연구는 사회제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2009년 3천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논문발표로 이어진 것과 같은 결과이다(송호준, 박지현, 박현정, 2019). 연도별로 질적 연구방법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이후부터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상학 방법이 41.1%로 가장 많은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분석 등 기타방법이 23.5%, 사례연구, 생애사가 각 8.8%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은 다문화권의 결혼 이민자 여성과는 구분되는 북한이탈여성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기에 이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의 주제를 동향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9.4%). 질적연구 논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윤리, 영성 등 연구주제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며 새로운 접근의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적응과 정착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사회적응분야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박광택, 2014), 국내 다문화 대상자들의 연구주제들은 적응과 문화적·사회적 맥락의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김은경, 김현주, 2017) 북미에서는 다문화 대상자들의 증가로 연구주체들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Smith& Remond, & Rovanak, 2009). 초창기 정착과 적응을 위한 물질적·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사회적응 연구도 요구되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질적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넷째,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와 과정들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Hoyt&Bhati(2007)의 네 가지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질적연구 논문들이 질적연구 수행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상담분야의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봉환 외(2012)의 연구와 Hoyt&Bhati(2007)가 질적연구 50편을 대상으로 연구수행과정을 검토한 결과와 일치한다. 세부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구초점에 대한 평가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94.1%)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자료 중 축어록 활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심층면담은 인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나, 면접 자료 외에 현장노트 및 관찰기록 자료 등 다양한 질적 자료의 활용을 시사한다(김봉환 외, 2012). 연구자의 역할 측면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와 감수를 언급하지 않은 연구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질적연구의 과정이 타당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자로서의 준비와 수련, 질적연구의 수행과정이 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2. 논의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과 과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폭넓은 주제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주제는 사회적응과 가족관계, 정신건강·심리분야의 연구들로 이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다소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이탈여성의 삶은 북한이탈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지며, 경험은 북한에서의 경험, 북한이탈 이후 제3국을 포함한 경험, 남한 입국 이후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경험의 범주는 환경적, 상황적 맥락이 아주 이질적이어서 하나의 맥락이나 공통적인 맥락으로 이해하고 분류·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류진아, 오은경, 2021).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 발달의 영향을 준 북한 내에서의 출신성분제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와 시대적 배경(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탈북과정에서의 경험(탈북기간, 재중경험) 등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내면적 경험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질적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정서, 행동들을 집중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삶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방법이나, 본 연구의 질적 연구물들은 이들의 삶의 내용과 경험을 충분히 다룰 만큼의 주제가 다양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은 여전히 의식과 무의식에 남아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북한 내에서의 계층과, 시대적 배경, 탈북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초점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둘째, 북한이탈여성 관련한 심리·상담분야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병증발생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생활에서부터 탈북과정, 남한적응과정 등 전 생애에 걸쳐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아람 외, 2013).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을 선택한 이후 제3국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며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사건과 외상에 노출, 가족 붕괴 및 해체, 자녀와의 단절 및 분리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들은 남한 정착의 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한 사회적응에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남한 적응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북한에서 제 3국으로, 남한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이해하고 지지할 때 삶에 대한 만족과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조아람 외, 2013), 북한이탈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장에서의 심리적 경험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에 대한 철학과 연구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적연구는 행위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며 심층적 이해를 돕는 연구방법이다.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이기에 선입견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 Hoyt&Bhati(2007)는 양적 연구가 지향하는 실증주의적 검증을 위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질적연구 자료들이 신뢰할만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논문에서만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만을 대상

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국내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문적 정의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국내-국외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특징과 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틀을 고려한 해외 연구물들도 함께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물 평정에 있어 학제 간 교차 접근 및 평정 수행의 한계가 있었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평정기준을 정하였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평정과정에서 여성학, 사회복지학, 북한학, 교육학 등 학제 간 교차 접근이 수행되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세부적 동향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개인내적 변인을 고려한 평정기준 뿐 아니라 학제 간 교차 접근을 통해 심도 있는 평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정을 위해 Hoyt&Bhati(2007)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전체 질적 연구방법론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학문적 기원과 연구방법에 대한 초점,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기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질적연구에 대한 수행과정과 평가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연구물 전체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여성 관련 질적연구 주제의 확대, 각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차연(2003). 재중 탈북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1호. 61-80.
- 권경인·양정연(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3871-3893.
- 김계원·정종진·권희영·이윤주·김춘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3호. 521-542.
- 김경옥(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2008).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배주연·오효정·윤영선·제갈원(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3호. 729-752.
- 김용태·배철효(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3호. 81-116.
- 김은경·김현주(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상담학연구. 제18권 제2호. 245-270.
- 김이경(2019). “북송경험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 및 적응에 관한 생애사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제11권 제1호. 25-67.
- 김인숙(2006).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복지적 지원방안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229-243.
- 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20).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제21권 제2호. 240-250.
- 김희경(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1003-1022.
- 남북하나재단(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노정화·김현주(2018).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 변화과정”. 가족과 가족치료. 제 26권 제2호. 205-228.
- 류진아·오은경(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질적 탐구. 제7권 제1호. 35-69.
- 문숙재·김지희·이명근(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137-152.
- 박광택(2014).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15-29.
- 박명희(2005). “中國內 脫北女性の 生存實態와 難民地位問題”. 신아세아. 제12권 제2호. 115-144.
- 박소연(2017).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미망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1권 제2호. 5-30.
- 박승민·김광수·방기연·오영희·임은미(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 과정. 서울: 학지사.
- 박신순(2014). 탈북여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중국-한국에서의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숙(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 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선(2003). 탈북여성문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79-87.
- 성정현(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120.
- 손은정(2010). “수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3호. 1-21.
- 송호준·박지현·박현정(2019).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제2호. 85-95.
- 신희정(2017).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1호. 161-194.
- 안태윤(2014).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전쟁동원 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0권. 181-216.
- 양옥경·윤지혜(2017).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 분석: 스코핑 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1권 제2호. 172-196.
- 오은경·최미·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제17권 제5호. 223-242.
- 용영숙·김숙자(2018). “탈북 아동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제39권

제4호. 23-37.

- 유시은·전우택·조영아·홍창형·엄진섭(2005).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 적응 추적연구”. 통일연구. 제9권 제1호. 73-105.
- 윤여상·김현아·한선영(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693-718.
- 윤인진(2009).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학술정보.
-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 11호. 125-149.
- 이금순·김규륜·김영운·안혜영·윤여상(2005).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 이기영·성향숙(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제47권. 243-271.
- 이순민·심우찬(2018).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18권 제7호. 170-183.
- 이양자·정남운(201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3권. 1-23.
- 이영선·구혜환·한인영(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2011년 하반기. 제56권. 147-194.
- 임현주·이진아·양숙자(2017).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연구 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 제28권 제2호. 144-155.
- 정영선(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98(3). 97-135.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주람·김성미(2015). “북한이탈 중년여성들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권 제3호. 59-84.
- 정영선(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98(3). 97-135.
- 조아람·유춘길·박소임·성유용·서주희(2013).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증 발생시기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 제24권 제4호. 373-384.
- 조영아(2005).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아·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

- 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0권 제1호. 17-35.
- 조용관·김윤영(2009).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서울:한울.
- 최빛내·김희경(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1호. 206-209.
- 최승미(2008).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현실(2011).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제1호. 161-204.
- 최혜윤(2019).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사의 경험”.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6권 제4호. 289-318.
- 한인영·강향숙·백형의(2013).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적 외상 경험”. 사회과학연구. 제29권. 187-207.
- 한인영·홍선희(2012).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제25권. 75-93.
- 홍규덕(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모색”. 아시아여성 연구. 제41권. 3-52.
- 홍승아(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제25권 제2호. 173-205.
- Dewey, J. (2011). 경험과 교육.(강윤중 역). 서울: 박영사.(원저 1938 출판).
- Hoyt, W. T., & Bhati, K. S. (2007). Principles and practice: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201-210.
- Morrow, S. L. (2005). Quality and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50-260.
- Smith, S. D., Reynolds, C. A., & Rovnak, A. (2009). A critical analysis of the social advocacy movement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7(4), 483-491.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Sage.

Abstract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trends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ed on domestic journals

Eunkyung OH*·Jin-A Ryu**

To this end, 34 qualitative studi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were analyzed so far in databases (RISS4U, KISS, DBpia) provided by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For a total of 34 papers, qualitative research trend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sis publication year, academic field and journal name,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topics, and the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according to the four dimensions of Hoyt&Bhati (2007).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trend analysis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teadily researched since 2005, and the mos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cond, the most widely used research method was phenomenology, and vario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11. Third, the most research on social adaptation was conducted, followed by family/ relationships, mental health and psychology. Fourth,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s focus and the reporting and quotations of research results are frequently performed, but it is analyzed tha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nfirmation through checked by independent auditors and minimization of the researcher's preconceptions are relatively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topic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 women, implications for each academic field, and follow-up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multicultural women, North Korean defectors, qualitative research, trends.

* First Author: Research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